

2025 ARPS 교재 연례개정표

1권. 은퇴설계의 New Paradigm

쪽수	출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하4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는 5억 2,727만원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의 보유자산이 6억 452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은 5억 4,836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는 5억 4,022만원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6억 1,4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8,251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다.	내용수정
19	하2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으로 발표하는데, 2012년 65.7세에서 2018년 64.4세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65.8세으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7년이 가까이 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으로 발표하는데, 2012년 65.7세에서 2022년 65.8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7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내용수정
25	상1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7세(남자 79.9세, 여자 85.6세)이다.	2023년 출생아의 평균수명은 83.5세 (남자 80.6세, 여자 86.4세)이다.	내용수정
28	하3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2년 79.9세로 21.2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에서 85.6세로 19.8세 늘어났다.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3년 80.6세로 21.9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에서 86.4세로 20.6세 늘어났다.	내용수정
28	그림1-3		첨부 1	하단첨부
29	상8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 만 하더라도 12.7년이었던 60세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 만 하더라도 12.7년이었던 60세	내용수정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1년에는 22.8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7.4년으로 늘어났다. 2022년 당시 60세인 남성은 평균 82.8세, 60세 여성은 평균 87.4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3년에는 23.4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2년으로 늘어났다. 2023년 당시 60세인 남성은 평균 83.4세, 60세 여성은 평균 88.2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29	그림1-4		첨부 2	하단첨부
43	표1-3		첨부 3	하단첨부
43	하1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해 있는 50대 가구는 평균 6 억 452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40대 가구가 평균 5억 6,122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5천만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차 베이비부머들이 속한 6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5억 4,836만원이나 된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해 있는 50대 가구는 평균 6 억 1,448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40대 가구가 평균 5억 8,212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차 베이비부머들이 속한 6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5억 8,251만원이나 된다.	내용수정
45	하6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3년 18.4%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 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 가해서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4년 19.2%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 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 가해서 2035년에는 29.9%,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수정
47	상5	2023년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가 20.6%, 남자가 16.2%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 포인트 높다.	2024년 고령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21.5%, 남자가 17.0%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 이 남자보다 4.5% 포인트 높다.	내용수정

137	하7	2024년	2025년	내용수정
137	하6	재산(자동차 포함)	재산	내용수정
171	하6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한다.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한다.	내용수정
171	하5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내용수정
172	표3-15		첨부 4	하단첨부
182	하11	재산(자동차 포함)	재산	내용수정
184	상13	재산과 자동차에도	재산에도	내용수정
184	상14	자동차는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삭제	내용수정
223	하8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얼마 전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에는 노령연금을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5,410명이었는데, 2023년 1월에는 그 수가 15,290명으로 2.8배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2022년말에는 노령연금을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5,410명이었는데, 2023년말에는 그 수가 15,90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	내용수정
223	하3	당장 눈에 띄는 원인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 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로 1999년 7.5%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변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내용수정

		<p>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 1월에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늘어난 데는 물가상승률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소비자물가상승률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2023년 1월에 노령연금을 200만원을 넘게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에 적어도 190만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야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했을 때 200만원이 넘는다. 사실 월 190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고액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변이 많이 확대 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 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p>		
224	하10	<p>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을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2023년 3월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월평균 62만원으로 아직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10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만 8,304명이었던 월 100만원 연금수급자는 2022년에 56만 7,149명으로 늘어났다. 6년 사이에 4.4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어, 2023년 1분 기에만 9만명 이상 늘어나서 그 수가 6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노령</p>	<p>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을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2023년 12월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월평균 62만원으로 아직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10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만 8,304명이었던 월 100만원 연금수급자는 2023년에 67만 8,748명으로 늘어났다. 7년 사이에 5.3배가 늘어난 셈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p>	내용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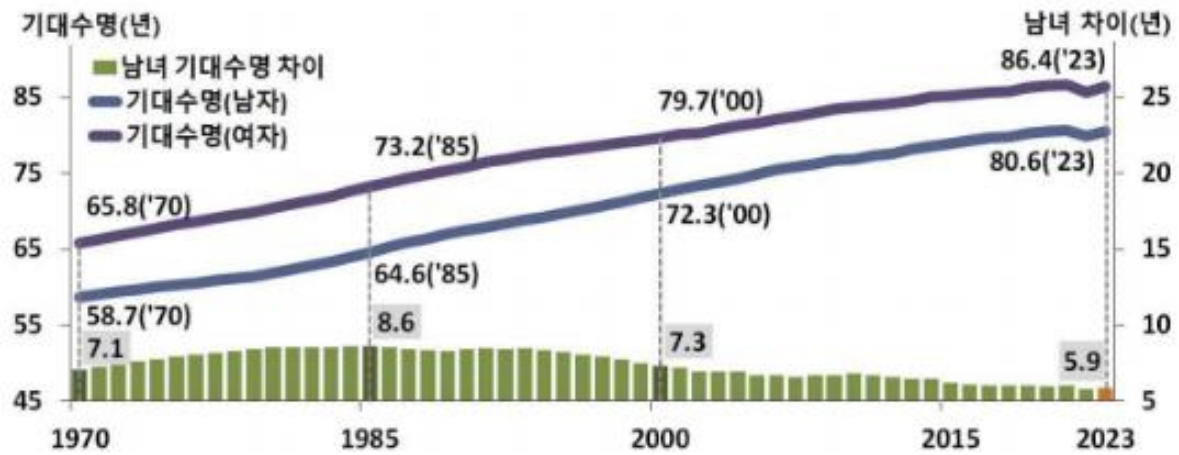
		연금 수급자에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만 해도 3.8%에 불과 했던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비중이 2022년에 10%를 넘어섰고, 2023년 3월에는 12.2%에 이르렀다.	2016년만 해도 3.8%에 불과 했던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비중이 2022년에 10%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12.4%에 이르렀다.	
225	그림4-17		첨부 5	하단첨부
225	상2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되고 18년 남짓 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335조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실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02년 중에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457,468계좌 중 7.1%에 해당하는 32,566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92.9%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선택 비중이 왜 이렇게 낮을까?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실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3년 중에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529,664계좌 중 10.4%에 해당하는 55,124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89.6%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선택 비중이 왜 이렇게 낮을까?	내용수정
226	상7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계좌 중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2,459 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매달 받는 연금이 25만원 정도 될 것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에서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 만원이다. 이 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월 15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내용수정
226	상17	2022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5,550만원이다.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이다.	내용수정
226	하7	하지만 2021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4.3%로 상승했고, 2022년에는 7.1%로 치솟았다. 2년 사이에 연금선택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4.3%, 2022년에는 7.1%로 상승했다. 2023년에는 그 비율이 10.4%로 치솟아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내용수정

226	하5	그래봐야 연금 선택 비율이 겨우 7.1% 밖에 안되는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좌 수 대신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2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적립금은 15조 5,113억원이고, 이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 적립금은 5조 639억 원이다. 계좌 수 기준으로는 연금 선택 비율이 7.1%에 불과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는 32.6%가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연금수급을 시작한 계좌 적립금 중 3분의 1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봐야 겨우 10% 남짓 밖에 안되는 연금 선택 비율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좌 수 대신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적립금은 15.5조원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 적립금은 7.7조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 선택 비율이 10.4%에 불과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49.7%가 연금을 선택한 셈이다.	내용수정
226	표4-18		첨부 6	하단첨부
227	상2	2017년 말 15 조 2,822억원이었던 개인형 IRP 적립금이 2022년 말에는 57조 6238억원으로 늘어났다. 5 년 동안 연평균 30%씩 적립금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168 조 4348억원에서 3335조 8935억 원으로 연평균 14.8%씩 성장했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보다 개인형 IRP가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9.1%에서 2022년 17.2%로 2배나 늘어났다.	2017년 말 15 조 2,822억원이었던 개인형 IRP 적립금이 2023년 말에는 75조 6,247억원으로 연평균 30%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168.4조원에서 382.3조원으로 연평균 15%씩 성장하는데 그쳤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보다 개인형 IRP가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9.1%에서 2023년 19.8%로 2배 넘게 늘어났다.	내용수정
227	그림4-19		첨부 7	하단첨부
228	상8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주택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가 사상 최대로 많았다. 2016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해마다 만 명 남짓 증가하고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주택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해마다 만 명 남짓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가입자가 14,580명이나 늘	내용수정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가입자가 14,580명이나 늘어났다.	어났다.	
230	표4-3	입축기간	인출기간	내용수정
270	상4	2021년에는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월 199만원은 있어야 하고, 적정 생활비로는 월 277만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2023년에는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월 217만원은 있어야 하고, 적정 생활비로는 월 297만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내용수정
270	표4-11		첨부 8	하단첨부
270	하10	2022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8만 6,112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98만 1,140원 밖에 안된다. 한달에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5,410명)는 전체 노령연금수령자(531만명)의 0.1%에 불과하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105만원밖에 안 된다. 한달에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17,805명)는 전체 노령연금수령자(546만명)의 0.3%에 불과하다.	내용수정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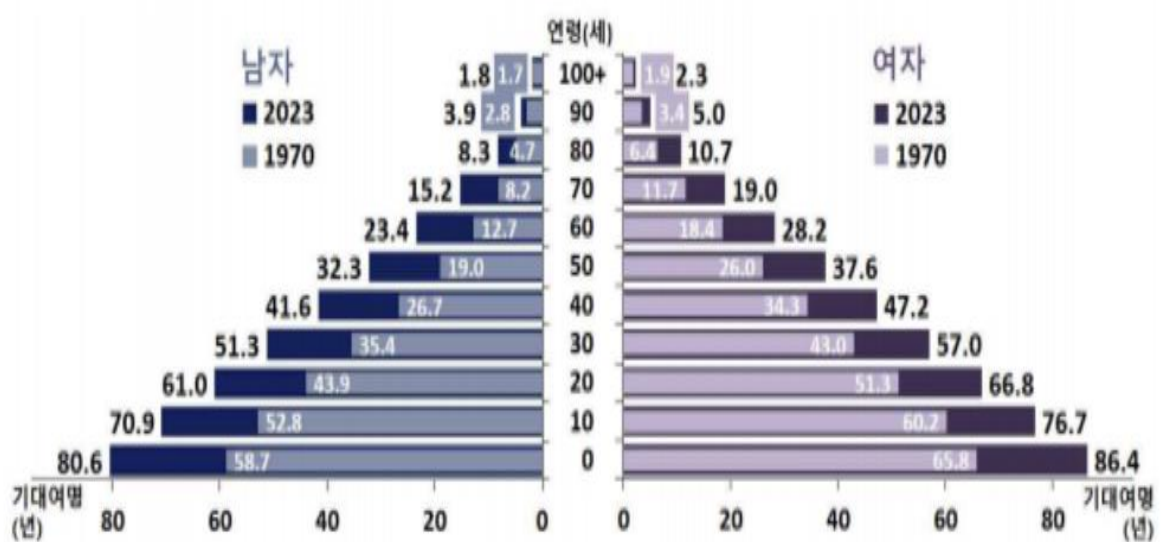
[그림 1-3] 남녀 성별 평균수명



자료: 통계청 (2023 년 생명표)

[첨부 2]

[그림 1-4]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1970 년, 2023 년)



자료: 통계청 (2023 년 생명표)

[첨부 3]

[표 1-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만원, %)

(단위: 만원, %)										
		자 산	금 용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전	체	54,022	13,378	9,710	3,668	40,644	75.2	38,084	22,692	2,560
가 구 주 연 령 대	3 9 세 이 하	31,583	13,079	6,284	6,795	18,504	58.6	16,135	11,623	2,369
	4 0 ~ 4 9 세	58,212	15,950	10,495	5,455	42,262	72.6	39,196	25,645	3,066
	5 0 ~ 5 9 세	61,448	15,589	12,613	2,976	45,859	74.6	42,666	25,634	3,194
	6 0 세 이 상	58,251	10,976	9,258	1,718	47,275	81.2	45,241	24,761	2,034

자료: 통계청 (2024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첨부 4]

[표 3-15]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2025 년 1 월 현재)

■ 소득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연소득	336만원 이하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20,000만원
보험료율	-	7.09%	7.09%	7.09%	7.09%	7.09%
소득보험료	19,780	59,080	177,250	295,410	590,830	1,181,660
장기요양보험료	2,560	7,650	22,950	38,250	76,510	153,030
예상지역건보료	22,340	66,730	200,200	333,660	667,340	1,334,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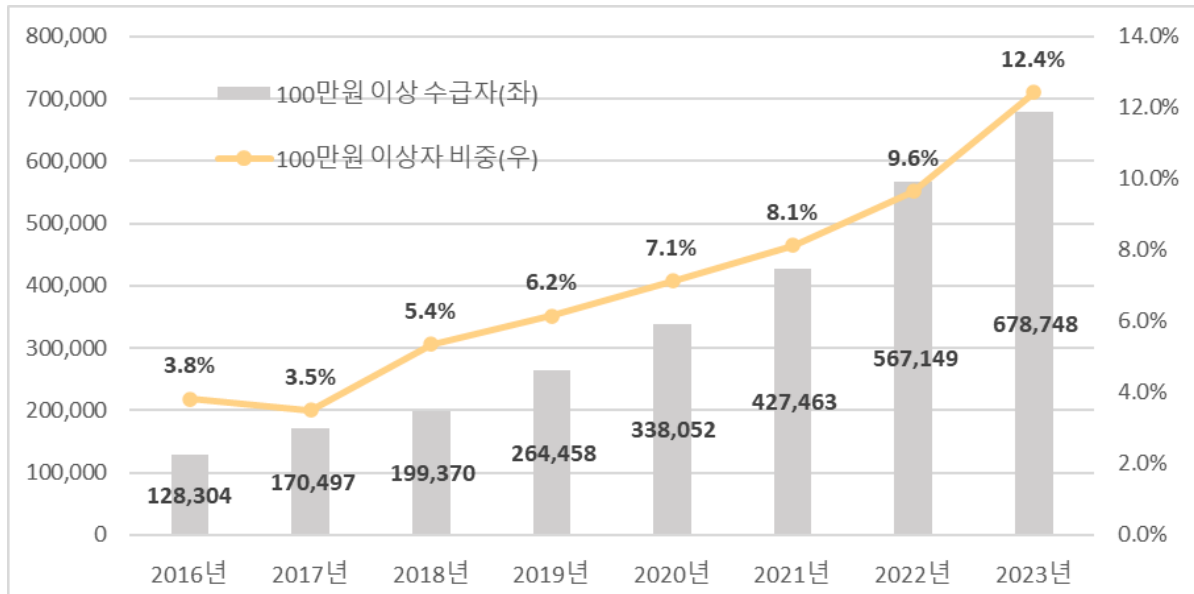
■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표	2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재산 점수	439	757	1001	1191	1341	1571
점수당 보험료	208.4	208.4	208.4	208.4	208.4	208.4
재산보험료	91,480	157,750	208,600	248,200	279,460	327,390
장기요양보험료	11,840	20,420	27,010	32,140	36,190	42,390
예상지역보험료	103,320	178,170	235,610	280,340	315,650	369,78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첨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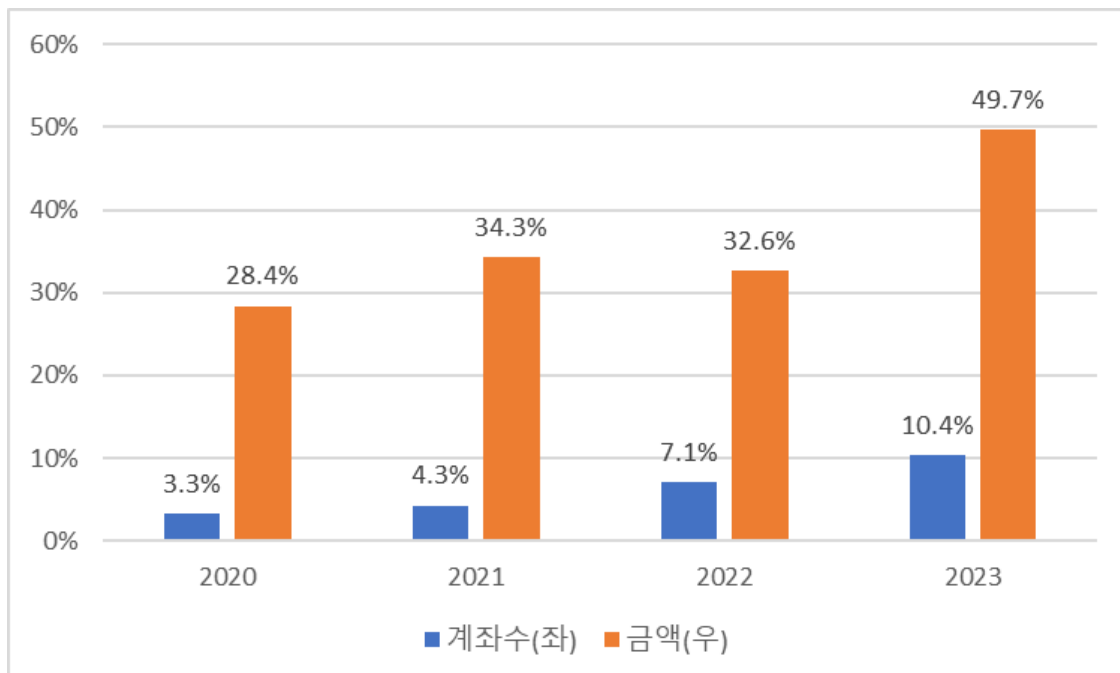
[그림 4-17] 노령연금 월 100 만원 이상 수급자 수와 비중



자료 :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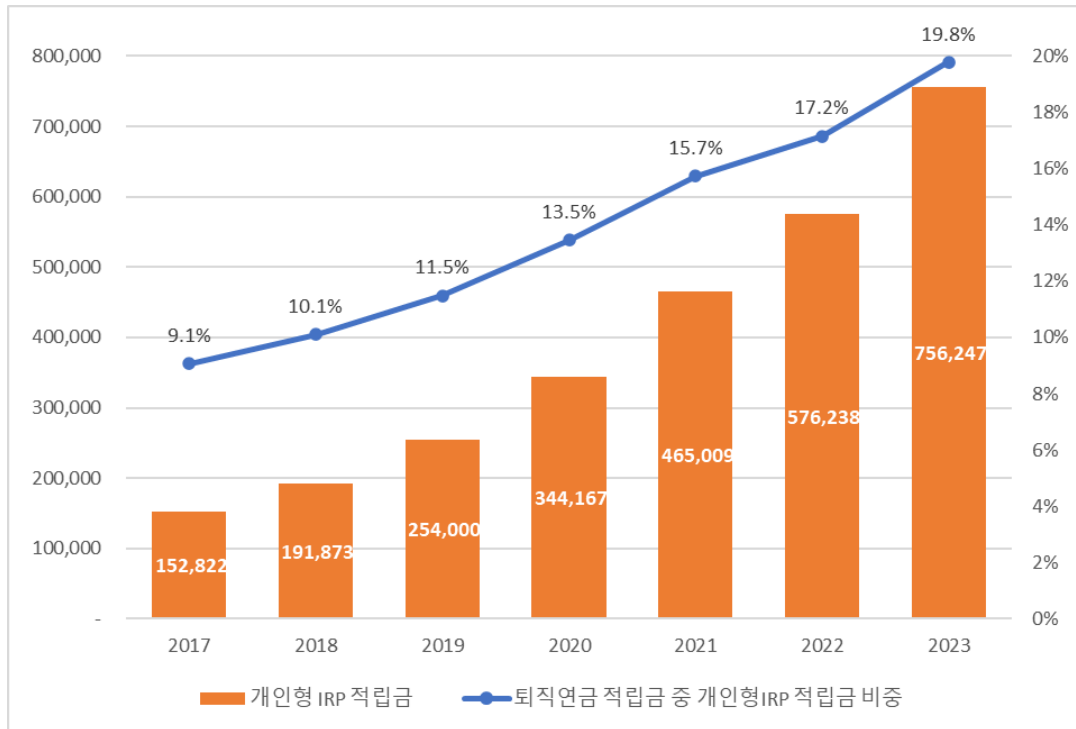
[첨부 6]

[그림 4-18]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에서 연금 선택 비중



[첨부 7]

[그림 4-19] 퇴직연금 적립금 중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첨부 8]

[표 4-11] 노후생활에 필요한 월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단위 : 만원)

구분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개인	부부	개인
전체	217.1	136.1	296.9	192.1
서울	248.2	156.8	337.1	219.8
광역시	215.3	130.7	298.7	186.0
도	208.3	132.1	283.6	186.3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23 년 노후보장패널조사)